



알코올 소비량과 음주행태

김동겸 수석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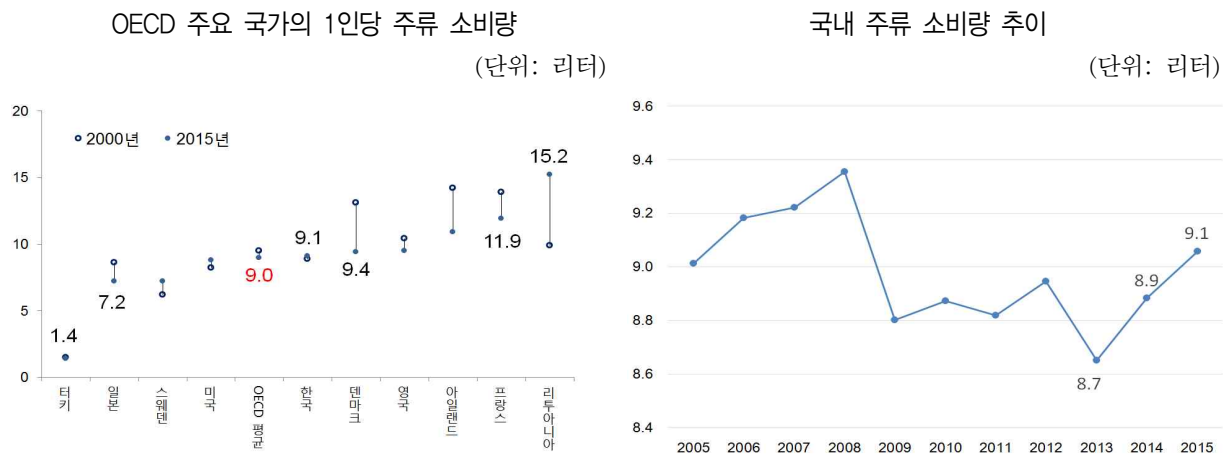
여약

우리나라 15세 이상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은 2015년 기준 9.1리터로 OECD 국가의 평균적인 수준이나, 최근 들어 주류 소비량이 소폭 증가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20~30대에서의 고위험 음주경험이 높고 여성의 고위험 음주비율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임. 음주는 흡연 등과 같이 만성질환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주요 국에서는 알코올 소비 증가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시행 중에 있음

■ 우리나라 15세 이상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은 OECD 국가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나, 2013년 이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그림 1) 참조

-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은 9.1리터로 OECD 국가 평균(9.0리터)과 유사함
 - OECD 회원국 중 알코올 소비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에스토니아(12.3리터), 벨기에(12.6리터) 등이며, 터키(1.4리터), 이스라엘(2.6리터) 등은 알코올 소비량이 낮은 국가에 속함

〈그림 1〉 15세 이상 인구의 주류 소비량



자료: OECD(2017), Health at a Glance;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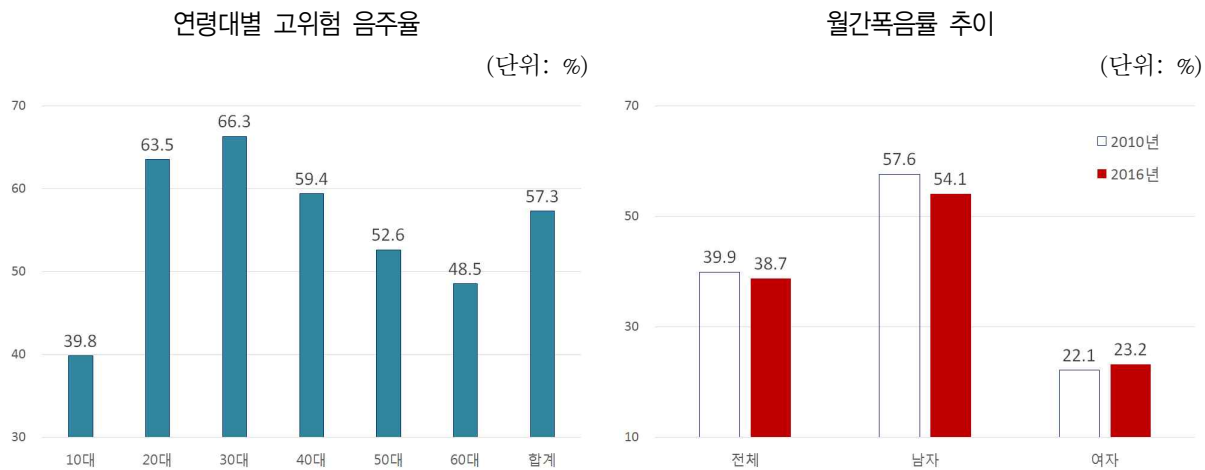
- 건강을 고려한 음주습관 개선으로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은 2013년에 8.7리터까지 감소하였으나 2015년에는 9.1리터로 증가함¹⁾
 - 이해국(2017)은 혼술 등 음주문화가 확산하는 가운데 대형마트에서 수입 맥주를 묶어 싼값에 파는 마케팅, 주류광고 등이 알코올 소비량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우리나라 성인의 음주행태를 보면 (1) 여성 음주율의 증가, (2) 저연령대의 높은 고위험 음주율,²⁾ (3) 적정 음주량 대비 높은 실제 주류 섭취 등의 특징을 보임

- 첫째, 2016년 기준 남자와 여자의 월간음주율³⁾은 각각 75.3%와 48.9%이며, 여성의 월간음주율⁴⁾은 증가추세에 놓여있음⁵⁾
 - 연령별 음주율은 남성 30대와 여성 20대에서 가장 높고,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둘째, 최근 6개월 내 음주를 경험한 자 중 고위험 음주경험비율은 57.3%이며, 남성(59.7%)이 여성(54.8%)보다 고위험 음주비율이 높음(〈그림 2〉 참조)
 - 연령대별 고위험 음주경험 비율은 30대(66.3%), 20대(63.5%), 40대(59.4%), 50대(52.6%), 60대(48.5%) 순으로, 20~30대의 고위험 음주 경향이 높음
- 셋째, 남성의 54.1%와 여성의 23.2%는 월 1회 이상 폭음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남성의 월간폭음률⁶⁾은 감소한 반면 여성의 경우 소폭 증가함(〈그림 2〉 참조)
- 넷째, 주종별 1회 평균 음주량은 소주(50ml) 6.1잔, 맥주(200ml) 4.8잔 등으로 음주자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 음주량(소주 4.3잔, 맥주 4.2잔)보다 실제 더 많이 마시고 있음⁷⁾
 - 남성이 생각하는 소주, 맥주, 탁주 및 과일주 적정 음주량은 WHO 기준 저위험 음주량⁸⁾보다 적었으나, 여성이 생각하는 소주, 맥주 등의 적정 음주량은 WHO 기준 저위험 음주량 보다 많았고 실제로도 많이 마시는 것으로 조사됨

1) 이해국(2017), 『주류 광고·마케팅과 음주 문제』, 2017년 음주폐해예방의 달 심포지엄 및 연합학술대회
 2) 고위험 음주란 과음, 만취, 폭음과 같이 건강의 해가 되는 수준의 음주로, WHO 기준으로는 순수한 알코올로 남자 60g, 여자 40g 이상의 양으로 알코올 도수 17%인 소주를 기준으로 남자 8.8잔, 여자 5.9잔에 해당함
 3) 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음주한 비율
 4) 2013년: 45.7%, 2014년: 46.4%, 2015년: 46.5%, 2016년: 48.9%
 5) 질병관리본부(2017),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1차년도(2016) 주요결과』
 6)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자 7잔, 여자 5잔 이상 마시는 경우를 폭음이라 하고, 이러한 폭음을 월 1회 이상 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월간폭음률로 정의함
 7) 식품의약품안전처(2017. 12. 21), “우리나라 20~30대 고위험 음주와 폭탄주 즐겨 - 17년 주류 소비·섭취 실태조사 결과”
 8) WHO 기준 저위험 음주량(성별·주종별 1회 평균 섭취량)은 다음과 같음. (1) 남성: 소주 5.9잔, 맥주 5.6잔, (2) 여성: 소주 2.9잔, 맥주 2.8잔

〈그림 2〉 우리나라 성인의 음주 현황



주: 1) 고위험 음주율: 1회 평균 음주량이 7잔 이상이며 주 2회 이상 음주한 분율
 2) 월간폭음률: 최근 1년 동안 월 1회 이상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자의 경우 7잔 이상, 여자의 경우 5잔 이상 음주한 분율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2017); 질병관리본부(2017. 12. 21)

-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폭음 등 유해한 음주는 200가지 이상의 질병과 손상의 주요 원인이며, 조기 사망 및 장애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매년 330만 명이 음주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함⁹⁾
- 이에 WHO(2014)¹⁰⁾에서는 알코올 소비 증가가 건강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류세 인상, 음주가능연령 상향 조정, 술 관련 광고 규제 등의 예방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
- OECD(2015)¹¹⁾에서도 독일, 체코, 캐나다 등에서 시행한 음주규제정책 시행으로 폭음, 술에 대한 의존 비율을 5~10% 가량 낮아진 것을 근거로, 국가별로 주류가격이나 주류세 인상을 권고함 **kiri**

9) WHO(2015), Alcohol, Fact sheet
 10) WHO(2014), Global status report on alcohol and health 2014
 11) OECD(2015), Tackling Harmful Alcohol Use